

“봉사하는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 2019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성료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 · 교류협력 활성화 마련
우수 봉사자 20명 · 인증요원 4명 · 관리센터 5곳 표창

2019년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가 6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전광식 충북도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단체장,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가 주관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제14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홍보와 봉사 참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교류협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 연합봉사단 소속 나우리봉사단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우수 인증요원 ·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 증정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충청북도지사 표창 8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표창 9명(자원봉사자 5명, 인증요원 4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표창 7명 등 총

24명이 표창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협의회 소속 나우리봉사단 회장인 심재훈 자원봉사자가 연합봉사단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표창을 수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현재 활동 중인 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중 최다 실적 등록 기준으로 뽑힌 5개소에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이 증정되어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에 헌신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영석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가 되새기고 나눔 문화가 앞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한 해 동안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충북도의 자원봉사자 수는 11월 말 기준 22만3380여 명이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시상 후 수상자들과 함께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유공자 명단

● 충청북도지사 표창(8명)

김명동(나우리봉사단), 김정숙(다사랑회), 김현주(나눔의 인연 봉사회), 어해진(충주종합사회복지관), 유순희(정주내덕노인복지관), 육정민(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병조(서부종합사

회복지관), 장정남(증평종합사회복지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표창(9명)

권안영(단양장애인복지관), 박길화(단양장애인복지관), 백성혜(청주종합사회복지관), 심재훈(나우리봉사

단), 한영자(단양장애인복지관), 이근희(충주시노인복지관), 최세용(충주종합사회복지관), 최수진(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최은선(충주시노인복지관)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표창(7명)

김홍원(스마일봉사단), 박운자(나우리봉사단), 신정임(나눔의 인연 봉사

회), 유동현(스마일봉사단), 윤지영(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천행복(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홍화선(충주종합사회복지관)

●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 증정(5개소)

단양장애인복지관,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새영기초푸드뱅크, 에덴지역아동센터, 청주상당재가노인지원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희망2020나눔캠페인과 함께 지난달 21일 막 올려
모금액 75억8400만원 목표... 내년 1월말까지 진행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1일 청주상당공원에서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진행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1일 청주상당공원에서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으로 행복한 충북'을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이어진다. 모금 목표액은 75억 8400만원으로 7584만원이 모아질 때마다 청주상당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간다. 지난해 캠페인 목표액 66억8900만원 보다는 8억9500만원이 높다.

이날 행사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장선배 충청북도지사,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한범덕 청주시장, 하재성 청주시의장, 변재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급 유관기관 · 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염원하며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김준일 회장)가 4500

만원 상당의 한돈을, (주)충북소주(황요나 대표)가 11년째 이어가는 사랑의 연탄나눔을 위해 750만원을 각각 충북모금회에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노영수 충북모금회장은 “도민 여러분이 참여해주시는 소중한 나눔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 생명이 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나눔으로 행복한 충북 실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충북모금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나눔캠페인을 전개하며, 4일부터 시 · 군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및 성금모금행사를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충북모금회 홈페이지(http://cb.chest.or.kr)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북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방송사를 통해서도 기부참여를 할 수 있다. 기부된 기부금은 국제정연발정산서비스와 자동연계돼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다.

‘발달장애인 체험형 직업훈련’ 지원 본격화

충북교육청 장애인고용공단 훈련센터 통해 집중 지원

충북교육청이 발달장애인의 체험형 직업훈련 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지난달 19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 체험형 직업훈련을 돕는다.

이 센터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 행동 장애) 학생의 직업체험실습기회를 제공하고, 고3 · 전공과 · 졸업생 직업훈련 과정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 내 전환교육 담당 과장 교사 2명 지원과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일정 조정 · 사후관리, 장애학생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특수학교(급) 고3과 전공과 현장중심 전환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400여 명이 훈련할 수 있

는 규모로 직업체험실 10개관, 직업교육훈련실, 사무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직업체험실은 충북특수교육원(사무행정보조)과 도교육청(도서관 사서보조, 행복누리(바리스타), 하나병원(린넨 · 요양보조), 밝은누리(화장품포장), 행복모아(세탁보조), 청호나이스(제조보조), 스파오(의류매장 서비스), BGF리테일(식품포장), 롯데마트(대형마트 매장보조) 등 10개 파트너사에서 참여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이곳에서 반도체 방진복 세탁과 커피 바리스타, 화장품 포장 등 모두 10개 직무를 회사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훈련센터는 발달장애학생의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와 직업생활, 기능향상, 지역 내 취업처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제 봉사도 저축하시고 이자로 돌봄 받으세요!

봉사분야 : 어르신 말벗, 상담,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학교법인 충청학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 043 265 5305 (청주)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 043 653 5025 (제천)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준공... 본격 운영

300억원 투입... 보건소-복합복지관 함께 구성돼 '편리' 구강보건·재활센터 신설... "향상된 복지서비스 기대"

충주시는 10일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서 건강복지타운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주시건강복지타운은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부지 1만4330㎡에 건물 1만4565

㎡ 규모의 보건소(지하 1층, 지상 4층)와 복합복지관(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됐다. 보건소는 시 청사에서 위생과를 제외한 관련 부서 및 시설이 이전되며, 구강보건센터, 재활센터

가 신설되고 정신건강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시설도 건강복지타운으로 이전·운영하게 된다. 복합복지관은 시에서 지원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비롯한 복지 관련 위탁시설 7개소가 입주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게 된다. 충주시건강복지타운은 2012년 충주의료원이 안립등으로 이전하면서 발

생한 도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시설은 상주 근무 인원을 포함해 하루 평균 1500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신축에 따라 침체됐던 주변 레크리에이션과 맞춤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게 된다. 충주시건강복지타운은 2012년 충주의료원이 안립등으로 이전하면서 발

충주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2022년까지... 출산·양육지원·유연근무제도 등 주요

충주시가 올해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아 2022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

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

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 첫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유효기간 2년 연장에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2년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

운영실적을 재평가 받아 2019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기관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직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인 온돌봄놀이터가 개소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복원 첫걸음 되길"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온돌봄놀이터' 개소

제천시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인 '온돌봄놀이터(센터장 최미순)'가 문을 열고 11월 28일 신안실크벨리아파트 커뮤니티센터 2

층(면적 132㎡)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학부모 등 주민,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 사단법인 세종장애아동후원회 방대진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사, 돌봄센터현판제막식, 기관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함께 돌봄"은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과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함께 돌봄센터(Community Child Care

Center)를 구축하고,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사업이다.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모토 아래 '마을공동체의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 돌봄 시스템'구축을 위해 올해 4개소의 돌봄센터를 개소한 바 있으며, 내년 4개소 등 2022년까지 총 10개소의 초·중·고 학생 돌봄센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다함께 돌봄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들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제천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청소년 정책 간담회 '눈길'

제천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달 25일 제천연연초수납취급소 창의희센터에서 미래 주

역인 청소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천 제천시

장,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 유경균 제천교육장, 윤종섭 제천문화원장을 비롯한 기성 정책실 행사 20여 명과, 제천시 지역 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0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이 제안하고 정책실행자가 답하는 토코소 형식으로 2시간 넘는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지난 6월부터 'Double, J(Jumping Jecheon) 청소년정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모집해 14개 팀을 만들고 제천교육지원청과 청소년자치학교 가운데 선생님들의

정책 멘토링을 통해 직접 발굴하고 다음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 문화, 지역경제, 교통, 환경, 청소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번득이는 정책들이 나왔다. 특히 청소년의 회 구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학교 통학버스 운영활성화, 교문 앞 승하차 존 설치, 공공와이파이 확대, 청년 사업설명회 개최,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노후화 지역 활성화 등 청소년의 눈높이를 따라온 정책이 다수 제안됐다.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최우수 기업' 성과

올해 265억원 투입... 맞춤형 일자리 9015개 창출

청주시가 6일 충북도청에 열린 '2019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식'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사업비 1억원을 받았다.

청주시는 이 인증식에서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모습, 노인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과 건강한 노

후를 보내는 모습, 올해 사업성과, 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선 시·군의 일자리 고용분위기 확산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인증기업 발굴 실적

및 일자리 시책 실적 등 노인일자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실적이 평가됐다. 청주시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주시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265억원을 투입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9015개를 창출했다.

위급할 땐 대피 후 버튼만 누르면 '안전'

진천군 '안심부스' 설치 추진... 외부 차단·경찰 연결 등

진천군이 '안심부스' 설치로 사회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 예방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산업단지과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112 범죄신고와 범죄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 취약 구역에 안심부스를 설치했다.

안심부스는 위급상황 시 부스 안으로 대피해 비상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며, 외부에서는 경광등, 사이렌이 울림과 동

시에 24시간 관제하고 있는 내외부 CCTV가 작동, 경찰청 상황실과 통화가 연결되는 작은 대피소를 말한다.

군은 앞서 진천경찰서와 진천군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CPTED)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협의한 바 있으며 여러 사업들이 가운데 이번 안심부스 설치 사업의 추진을 결정했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약칭으로 도시계획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환경설계를 말한다.

이번 안심부스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진천읍 화랑공원, 광혜원 화랑공원, 혁신도시 옥동초등학교 후문, 덕산청소년 문화의집 앞, 혁신도시 OK마트 건너편 공원 등 5개 지역에 설치됐다. 군 관계자는 "안심부스가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줘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여성, 청소년 등 안전 취약주민에게는 범죄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높여 사회적 안전의 안전진천 건설에 일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군 매표초등학교 학생들이 매표읍사무소를 찾아 기탁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양 매표초 학생들이 이웃사랑 '훈훈'

6개월 간 직접 키운 고구마 등 판매해 성금 마련

단양군 매표초등학교 학생 일동이 10일 매표읍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41만9000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매표초 학생들이 6개월 간 공동으로 직접 키운 고구마, 땅콩 등을 매표 5일장에서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

다. 매표초 학생들은 지난 해 맨손 물고기잡기축제 플라마켓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도 매표읍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하며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줬다.

학생들을 인솔한 이강현 교사는 "학생들의 맑이 땀 농작물로

마련한 기탁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무엇보다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이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심상열 매표읍장은 "뜻깊게 마련한 학생들의 소중한 성금인 만큼 추운 겨울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앤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령센터, CJ수원반점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우동(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우동, 예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쟁물류(주), 청양식품, 리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주어탕, 좋은아침, (주)개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우유서부리대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우동, 델리스(분평동), 백설우동, 홈플러스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우어,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통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월시점), 이초곳베이커리, 골관마트, 동청주우유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무드글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우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우동, 장수우동,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올랑칸타빌점, 올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동, 용암서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협베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올랑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업단지점, 기분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홈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칠떡공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두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장지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금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파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산편백,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암떡집,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생사), (주)월드이십일 에이치규, 자연연결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과자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름, 서울유유치즈, 시아스우동, 두레주르 분평점, 목행점, 금관할인마트 올랑점, 청주떡방(주), 무외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게, GS슈퍼 증평점, 케익하우스, 금호숯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올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증평점, 델리칸 증평점, 그린우동, GS25 증평대리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나모,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옴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매표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감, 조마루 갑자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기화로, 옥천청담타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충옥), (주)번영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가자연면, (주)후드원, 김철철스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물우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 백안), 삼육우유, 파리바게뜨(덕신점)
- 진천나눔기쁨푸드뱅크 파르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진행, 김수향, 델리칸(이월점), 에스앤푸드, 자혜식품, 명가떡집, CJ나눔재단,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아삭식품, 명가떡집, 생가진식품, 햇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건국우유,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시푸드, 문우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잎리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파크림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주)주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수송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사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쎄디푸드, 대상청정원

보은군 생명존중사업 '전국 1위' 결실

생명존중문화 조례제정·농약안전보관함 확대 등 공헌 "유관기관 협력·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군 만들 것"

보은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 관련 현황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에 따라 A·B·C 그룹으로 나눠 시행한 이번 조사에서 C그룹 1위에 올랐다.

순위는 지자체별 자살률 증감·조직·인사·예산·사업 등을 점수화해 부여했다.

군은 '누구나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군민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

진해 왔다.

이런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2년에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자살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자살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은 지난해 통계청의 자살률 발표에서도 4년간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독자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농약안전보관함도 확대도 자살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군은 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연계해 지역주민 정신건강의료비, 우울적도검사,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김귀태 보건소장은 "자살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라며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자살 위험 대상자를 적극 식별하고, 생애주기별 체계적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복하고 건강한 보은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가 옥천군 청산면 대덕리에서 '희망의 집 43호' 완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옥천군 '희망의 집 43호' 완공식 개최

KB손해보험·초록우산어린이재단·옥천로타리클럽 등 지원 지역사회서 물품후원 이어져... 군 "지속적 관심 가질 것"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 본부는 12일 옥천군 청산면 대덕리에서 '희망의 집 43호' 완공식을 가졌다.

이 날 준공식은 김재중 옥천군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유성 본부장, 협력업체,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9월 갑작스러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어 생활터전을 순식간에 잃고 가족들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지내오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장모 양(10세)은 희망의 집 사업을 통해 새 보금자리를 선물 받았다.

약 두 달간의 노력으로 완공된 '희망의 집 43호'는 KB손해보험과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도 옥천로타리클럽에서 건축자재 및 공사 후원을, 한국토정보공사 옥천지사와 옥천군건축사협회에서 지적측량 및 설계를 무상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과 도움으로 지어진

선물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희망의 집 입주를 위한 물품 후원도 이어졌다. 옥천군노인장애인지원센터의 연계로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8백만 원 상당의 싱크대·가구·전자제품을 지원하였고, 옥천군과 청산면의 민관협력을 통해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등 장모 양 가정의 새 보금자리 입주를 축하했다.

김재중 옥천군수는 "희망의 집 입주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청바지 토크콘서트' 성료

학생 의견 수렴·진로 강연·공연 등 축제의 장 마련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일 '3회 괴산 청바지(청소년이 바라보는 지금)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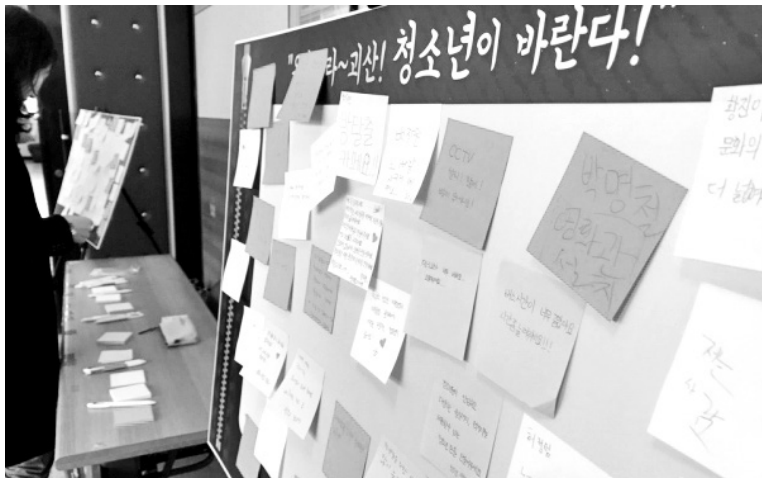
군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차영 괴산군수가 '응답하라, 괴산군! 청소년

이 바란다! Q&A 토크'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들의 소리를 들었다.

인기개그맨 김민기팀의 '투깝쇼' 개그공연과 급두한 바른진로 취업연구소장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도 있었다.

이어 괴산오성중학교와 괴산북중학교의 댄스팀 공연이 펼쳐지며 소통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괴산군은 4일 '청바지(청소년이 바라보는 지금)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콘서트를 기획한 유현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지역 청소년과 늘 동행하고, 다른 한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으로 함께하는 괴산 희망나눔사업

1인 1계좌 갖기 운동... 재경청천향우회 100구좌 신청·동참

괴산사랑 희망나눔사업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에 괴산군 청천면 출향인사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괴산 청천면은 지난 7일 서울 배라카채플에서 열린 재경청천향우회(회장 김태화) 송년회에 참

석해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후원계좌 모집 캠페인을 받았다. 이날 참석한 재경청천향우회 회원들은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100구좌를 신청하며 괴산사랑운동에 동참했다.

재경청천향우회는 또 "고향의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에게 전해 달라"며 방한복 1천벌을 흔쾌히 기탁하며 남다른 고향사랑을 전했다.

여기에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인 청천을 잊지 않고 수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익명의 출향기업인이 저소득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2천300만원 상당의 연어캔 196박스를 청천면에 보내와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

김태화 재경청천향우회장은 "고향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늘 잊지 않고 고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현호 청천면장은 "기부행렬에 끼여 동참해주신 출향인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후원에 주신 물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아동참여위원 및 움부즈퍼슨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하고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증평군, 아동관련 전문가 6인 대변인 위촉

증평군은 3일 아동관련 전문가 6인을 아동권리 대변인(움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위촉자는 김병노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재성 법률사무소 직지 대표변호사, 최은희 굿네이버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영일 세이브더칠드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김영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미숙 증평괴산학부모연합회장 등이다.

이들은 독립적 인권기구로 아

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아동의 고충 조사·구제, 시정조치·개선 방안 제시 등을 담당하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군정 전반을 살핀다.

군은 위촉식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열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군민(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증평군! 군민참여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 간 아동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논의됐다.

홍성열 군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 2020년도 시정 경제복지에 초점

박세복 영동군수가 제276회 영동군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시정연설을 통해 영동의 희망과 청사진을 그렸다.

박 군수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온 군민이 힘을 합쳐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영동을 만들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의 자세

로 새 열정과 각오를 다졌다.

박 군수는 "국가적인 저성장,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700여 공직자의 열정과 5만 군민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양수발전소 유치, 6000억 원 시대 돌입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룬 한해였다"며, "이는 군민과 군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 덕분"

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내년을 민선7기 반환점을 맞는 해이자 영동군이 힘찬 비상을 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군정 방향으로 경제의 활력화, 복지의 맞춤형, 농업의 명품화, 관광의 산업화, 행정의 투명화의 5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특히, 복지의 맞춤화를 위해서는 노인 보정기 구입비 지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재계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작년 3040 일자리 '뚝'... 노년층은 '깡충'

<13만개>

<25만개>

19세 이하는 3만개 ↓...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26만개 ↑ 연령대별 비중 40대 '1위'... 여성 일자리 24만개 급증

지난해 3040세대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노년층 일자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 수는 개업, 폐업 등이 혼재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수는 2342만 개로 전년 대비 26만 개(1.1%) 늘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 수는 1739만 개(74.3%),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6만 개(13.1%), 기업체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 수는 297만 개(12.7%)로 나타났다. 폐업·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71만 개로 2017년과 동일했다. 연령별 일자리 수 증감에서는 30대와 40대가 감소했고, 60대 이상이 증가했다. 30대는 전년 대비 8만 개(1.6%)가 감소했고 40대는 5만 개(0.8%)가 줄었으며, 60세 이상 일자리는 25만 개(8.3%)가 증가했다. 이어 50대·20대 일자리가 14만 개씩 늘어 2017년 대비 각각

2.6%, 0.7% 증가했다. 반면 19세 이하 일자리는 3만 개(1.1%)가 사라졌다. 연령대별 일자리 점유비중은 40대가 25.9%로 가장 많았고, 50대(23.3%), 30대(22.1%), 20대(14.2%), 60세 이상(13.8%), 19세 이하(0.8%)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성별로 보면 전년 대비 남자 일자리는 1만 개(0.1%) 증가했고 여자 일자리는 24만 개(2.5%) 늘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각 7만 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업점은 각각 4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6만 개, 건설업은 3만 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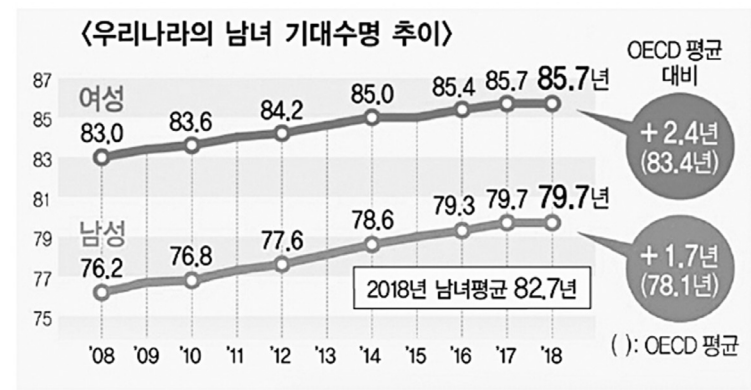
조직형태별 지난해 일자리 개수는 2017년 대비 회사법인이 16만 개, 개인기업체가 6만 개, 정부·비법인단체가 3만 개씩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7만 개, 중소기업은 16만 개, 비영리기업은 3만 개가 증가했다. 일자리 평균근속기간은 대기업 7.5년, 중소기업은 3.1년, 비영리기업은 7.9년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평균연령은 대기업 40.3세와 중소기업 46.4세, 비영리기업 45.4세로 집계됐다. 통계청 행정통계과 관계자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생산·제조업계의 어려움이 30~40대 일자리 감소와 60세 이상 인구의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제자리' (82.7년)

남자 79.7년 · 여자 85.7년... 유병 기간 제외 수명 64.4년 기대여명, 고연령층 제외 대체적 증가... 사망원인 '암' 1위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년과 출생아와 같은 82.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64.4년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79.7년, 여자 85.7년이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1년 전보다 0.1년 증가했지만 여자는 그대로다. 전체 기대수명은 1년 전과 같은 82.7년이다. 통계청은 시·구청 등에 신고된 사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몇 세까지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해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연도 사망률이 높아지면 기대수명도 증가세가 꺾이거나 줄어든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겨울은 1973년 이래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등 이상 기후를 보여 고령층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유럽에서도 2015년 폭염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대수명이 0.1~0.2년 감소했다"고 말했다. 남의 수명을 뜻하는 기대여명은 80세 이상 남성과 90세 이상 여성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40세 인구의 기대여명은 43.6년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40.8년, 여성은 46.5년



으로 여성이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60세의 경우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5년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2.6년과 2.3년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유병 기간 제외의 기대수명)은 64.4년으로 전만했다. 총 82.7년 중 18.3년은 병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남성은 64년, 여성은 64.9년으로 건강하게 보낸 기간의 비율은

남성이 80.3%로 여성(75.6%)보다 높았다. 2년 전 조사에서 유병 기간 제외의 기대수명은 64.9년이었다. 유병 기간 제외의 기대수명은 2012년부터 격년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꾸준히 감소 중이다. 한편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20.7%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11.8%)과 폐렴(10%)이 뒤를 이었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월 30만원 지원

작년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9413명... 월평균 40만원 못미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의 수당을 가장 2년 동안 지급하며 취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 부처 합동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설비 등을 갖춘 작업 공간이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인 가

운에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장애인 9413명으로, 월평균 임금이 40만원에 못미친다. 이들은 노동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고용 전환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월 30만원의 수당을 가장 2년 동안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소득 증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없도록 근로소득 공제 비율도 확대된다. 장애인은 고용 전환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직업능력 평가를 토대로 만들어진 개인별 고용 서비스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들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월 80만원씩 가장 3년 동안 지원해 고용을 지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에 속한 시설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임금 수준 등을 높일 방침이다.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시 탑승교 우선 배정

국토부 '항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28일부터... 우선좌석·점자 안전정보 제공

앞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

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항공편하를 취득한 뒤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18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첫 선... 121개 선정

충북 5 · 충남 8곳... 홍보 표시 사용권한 등 혜택 부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3일 지역 비영리단체와 동반자 관계(파트너십)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인정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

의회는 지난 10월 지역심사, 11월 중앙심사를 거쳐 최종 121개(서울 30, 부산 5, 대구 14, 인천 5, 광주 4, 대전 4, 울산 4, 경기 11, 강원 3, 충북 5, 충남 8, 전북 4, 전남 8, 경북 6, 경남 6, 제주 2, 세종 2)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을 선정했다. 인정기업에게는 1년간 해당연도 지역사회공헌 표식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시 평가 우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용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매년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여 해당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할 예정이고, 인정기업 대상 해당연도가 표기된 인정패 및 인정표식 사용 권한이 제공되며, 매년 선정된 인정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장관표창 및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반년간 5천명 이용

전국 16개 지자체 참여... 여성이 과반수·80대 가장 많아

지난 6개월간 전국 16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한 결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5000명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보건·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았다. '커뮤니티 케어'로도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도사업을 벌이고 있다. 16개 지자체는 3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9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9559명(노인 5635명, 장애인 3867명, 정신질환자 57명)을 찾아냈다. 대상자 발굴 경로를 구분해보면, 지자체 직접 발굴이 7천899명(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 등이었다. 특히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천869명

(50.9%)에게는 통합돌봄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했다. 이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4384건(40.7%), 건강·의료 2762건(25.7%), 주거 1996건(18.5%), 돌봄·요양 816건(7.6%) 순으로 1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개의 자원이 연계됐다. 또 서비스 대상자는 여성이 69%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80세 이상(32%), 70~75세(27%), 75~79세(23%) 순이었고, 장애인은 여성이 48%였고, 7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다. 가구 특성을 보면 독거(51.5%), 자녀 등과 함께 거주(24.1%), 노인 부부 가구(17.5%), 기타(6.9%) 순이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1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1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년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1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1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1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1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1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고령사회, 커뮤니티케어가 정착하려면?

가톨릭청소년센터서 모델 연구 포럼 개최 소득·주거·서비스보장 조건 충족 돼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박진홍)는 11월 29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공무원 및 민간복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에서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의 모델 연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국가적 측면에서 고령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커뮤니티케어에 주목했다.

치매국가책임제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 꽃동네네 조추용 교수의 주

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 좌장으로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토론자로 최경천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명구 충청북도 사회복지정책보좌관,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홍석호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보장·주거보장·서비스보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와 함께 각 지자체는 상호 순환고리를 만들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



11월 29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의 모델 연구'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했다.

또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는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회원기관들의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실현할 수 있어야하며 복지사각지대

충북 도민 자원봉사 활동 중요도 5점 만점에 4.6점

10월 29일~11월 13일 자원봉사 활동조사 주제 설문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돕는 것이 좋다' 45.9% 제일 ↑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이 5점 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 이하 센터)가 자원봉사의 날인 5일을 맞아 충북도민의 자원봉사 활동조사를 주제로 10월

29일~11월 13일 충북의 일반 패 널 및 사회복지종사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72%)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주된 동기는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돕는 것이 좋다'가 45.9%, '봉사활동이 주는 자긍심 때문에'가

20.9%, '경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위해' 17.3%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1순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28.6%, 2순위 '봉사자의 자질 향상' 20.5%, 3순위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15.9%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는 1순위 '10회 이상' 37.2%, 2순위 '1회~3회' 23.4%, 3순위 '3

회~5회' 20.4%,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 1회당 평균 활동시간 '1시간~3시간' 41.6%, '3시간~5시간' 37.2%, '5시간~8시간' 14.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관리 및 실적처리 소요기간에 대해 실적관리 '잘 되고 있다' 65.5%, 실적 처리 소요기간은 '일주일 이내' 82.2%로 조사됐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과와 같이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이 주는 자긍심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돕는 것이 좋은 덕택한 충북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에 愛반한 아름다운 송년의 밤'

12월 5일 더빈컨벤션서 '충북 사회복지사 대회' 개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 대상 수상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복지에(愛)반한 아름다운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충사협, 이원기 회장)는 올 한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땀흘리

고 노력한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5일 더빈컨벤션에서 '충북 사회복지사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복지에(愛)반한 아름다운 송년의 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홍배 미래복지개발원 이사장, 박종규 보람동산 이사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유관기관 단체장 및 사회복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시작으로 슬로건 공모 시상, 충북도지사 표창, 충북도의장 표창,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 사회복지사상, 사회복지사 대상 표창 등 모두 37명에게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이 수여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충북 사회복지사 대상'은 실천분야에서 25년 이상 활동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회복지사를 발굴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는 포상으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에게 수여되

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슬로건 공모 우수작을 퍼포먼스로 진행된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사의 응징력과 단합의 장이 되는 뜻 깊은 행사의 장이 되었다.

이원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하며, 앞으로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의 1차적인 책임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의 명확한 역할정립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11월 28일 CJB미디어센터(에덴아트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1,000여명이 참여하는 '2019년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콘서트'를 진행했다.

"힐링콘서트가 사회복지종사자에 많은 위로 됐다"

CJB미디어센터서 개최... 복지인 격려차 마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지난달 28일 CJB미디어센터(에덴아트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1,000여명이 참여하는 '2019년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가 후원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그간 도민의 사회복지

들이 함께한 가운데 가수 노라조, 김필, 강예슬이 출연하여 종사자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책임진 공연이 펼쳐졌다. 각각의 가수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만나 무엇보다 뜻 깊은 공연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힐링콘서트 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제주 힐링여행, 맛있는(건강) 여행, 불꽃축제 관람, 부부종사자를 위한 리마인드

웨딩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김영석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을 위한 자리아니만큼 마음껏 누리시고 많은 위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은 "힐링콘서트는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참여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어 올해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며,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자리아니만큼 마음껏 즐기시고, 활력을 얻어 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여가부 장관상 수상

2019 전국 최우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정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원장 김동환)이 2019년 전국 최우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본래 사업인 상담과 복지에 더해 소외된 청소년 지원과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해 도내 직업전문학교와의 업무협약, 자살, 자해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 고용주와 근로 청소년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고용주 노동인권 교육과 함께 청소년 근로 예절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소외된 학교 밖 청

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부모모임'과 학교 안과 같은 학교 밖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환 원장은 "우리 센터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외된 청소년 근로 예절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외에도 소외된 학교 밖 청



굿네이버스 충북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16명 학생과 학부모 등이 청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시의회 방문 (청주)

놀이터·통학로 정책·자유주제 등 정책제안 전달

굿네이버스 충북지부(최은희 지부장) 아동권리모니터링단 16

터 정책, '통학로 정책', '자유주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이날 정책제안 전달을 위해 방문한 8명의 학생들은 대학생 멘토 3명과 함께 아동들이 겪는 불편과 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한 활동을 발표하였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청주시의회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놀이터 정책', '통학로 정책', '자유주제' 3개 분야로 나눠 청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제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특히 제안정책 중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미세먼지 알람 전광판과 경고성 멘트가 나오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감재를 받았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32개 세부 사업, +2,443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아동·보육 분야

- (보육교직원 인건비)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결격 원장 수당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국회 확정 1조4242억 원, +461억 원)
- (영유아 보육료) 급·간식비 단가 등 고려 0~2세 보육료 인상 등(3조4056→3조4162억 원, +106억 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신축(73→165억 원, +92억 원)

장애인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0→91천명)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1조2752→1조3057억 원, +305억 원)
- (발달장애인지원) 주간활동 지원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855→916억 원, +61억 원)

노인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1조3271→1조4185억 원, +914억 원)
- (장사시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364→469억 원, +105억 원)

보건·의료 분야

- (국가예방접종실시)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3,352→3,387억 원, +35억 원)
-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 첨단재생바이옴 시형(20년 8월)에 따른 회귀·난치질환 임상 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신규 반영(+12억 원)

20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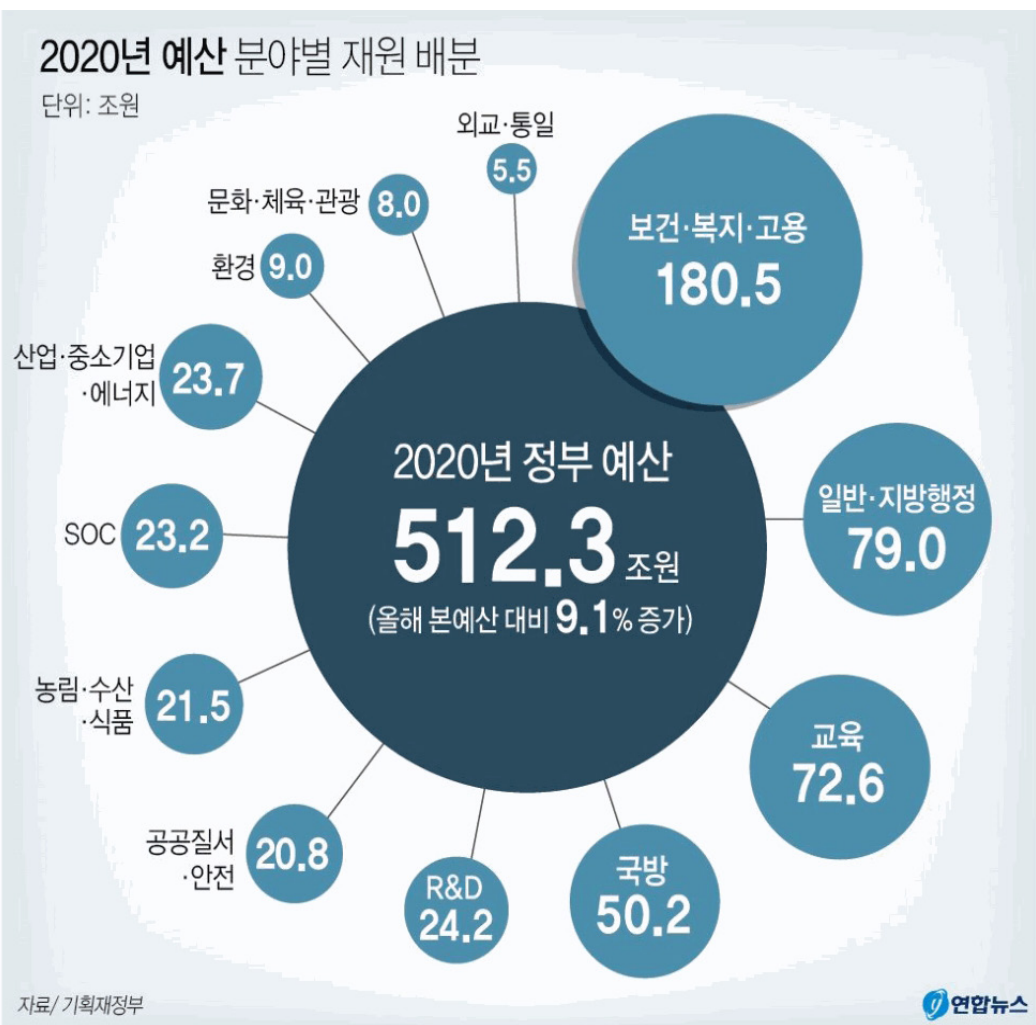
1. 소득·보장 강화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25~64세) 근로소득 공제 30% 신규 적용,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을 인하(현 4.17% → 2.08%),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56,230→65,038억 원, 15.7% 증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을 인하 및 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료보장성 강화 등
- (자활사업)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탈빈곤을 지원하는 자활일자리 5만 8천개 운영
- (탈수급 지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신규 시행
-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518→561만 명) 증가를 반영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

2.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81→90천명) 확대, 1인당 월 평균 급여량(109→127시간) 증가,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 감소에 대한 보전 조치(3만명, +10시간), 최저임금 인상 고려단가 인상(12,960→13,350원)
- (발달장애인지원) 주간활동(2.5→4천명), 방과후활동 대상자(4→7천명) 확대 및 시간당 단가 인상(12,960→13,350원)
-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일자리수 지속 확대(19년 2만 → 20년 2만 2,500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4,920명 → 7,820명, 최대 지급기간 3년)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아동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등 기존민간 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8개 사업 중앙조직을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
- * 아동복지법 개정(18.12)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출범(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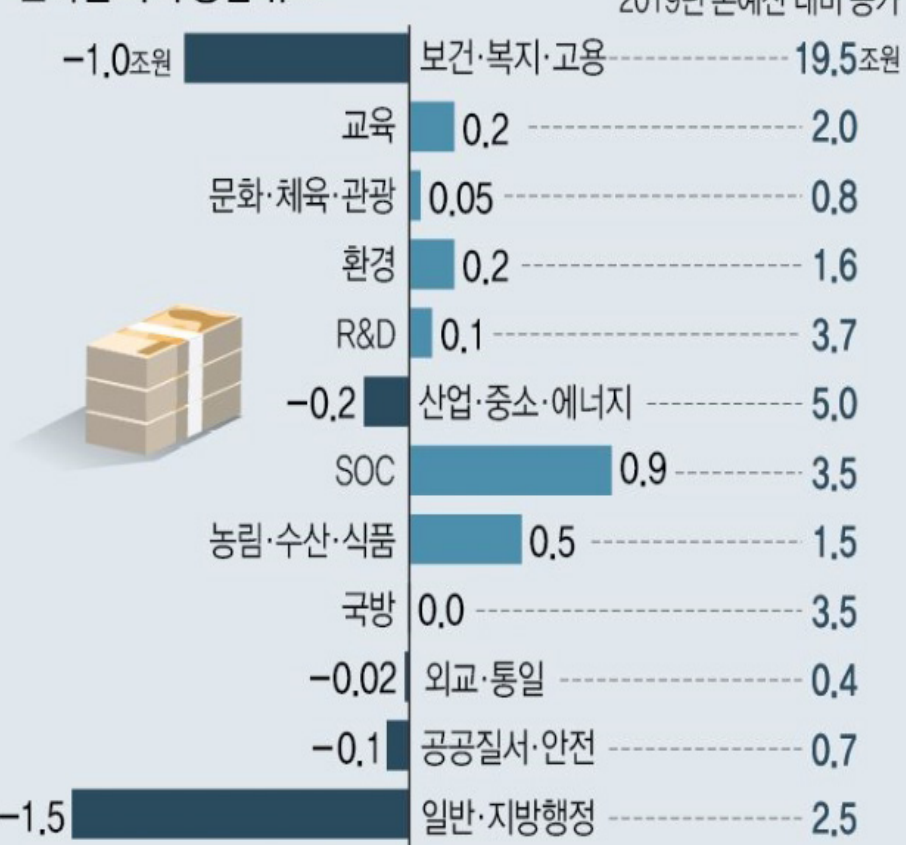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분야별 국회 증감 규모



(출처: 연합뉴스)

올해 대비 10조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14.2% · 보건복지 분야 11.7% 증액 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월 3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 장애인 활동 지원비 등 인상

< 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억원)

구분	'19년 본예산 (A)	'20년 본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출(A+B)	725,148	825,269	100,121	13.8
예 산(A)	450,879	515,094	64,215	14.2
기 금(B)	274,268	310,175	35,907	13.1
사회복지(B)	609,051	695,619	86,568	14.2
○ 기초생활보장	109,000	122,338	13,338	12.2
○ 취약계층지원	28,737	33,837	5,100	17.7
○ 공적연금	237,583	274,111	36,528	15.4
○ 사회복지일반	12,690	13,915	1,225	9.7
○ 아동·보육	81,264	85,094	3,830	4.7
○ 노인	139,776	166,323	26,547	19.0
◇ 보 건(B)	116,097	129,650	13,554	11.7
○ 보건의료	25,909	27,694	1,785	6.9
○ 건강보험	90,187	101,956	11,769	13.0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 맵버섯(가칭)'을 도입하고,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 시행하고, 대상(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돌봄 모델 현장 구축
 -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7개 신설(19년 4개소→20년 1개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 수준 목표로 단계적 향상(+38,457백만원, 4.7% 증가)
 -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인양로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대인력 지원 확대(+795명, +18,378백만원 순증)를 통한 법정근로시간(주52시간) 보장, 수혜자 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

4. 건강증진

- (건강보험 정부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정부지원비율 상향 조정(19년 13.6%, 78,732억 원 → 20년 14.0%, 89,627억 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하는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10→130개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75 → 95개소)
 - *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연계·협력,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거점 기능 수행
 - (지역보건정보시스템*) 기존 보건사업 유형별, 기관별 분절된 정보관리 체계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건강증진서비스 효과성 제고
 - * '20~'22년 단계적 구축, '20년에는 정보시스템재구조화 및 전면 재구축을 위한 분석·설계추진
 - (자살예방) 응급실 기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63개소 → 88개소), 기초 지자체(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자살예방 담당 인력 확충(207명)
 - (지역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580명 증원(17→19년 790명 → 20년 1,3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1→6개 광역지자체),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 설치(34명, 팀당 6명)
 -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초기 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1,351백만원, 15,00명), 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비 지원(634백만원, 5,00명), 응급입원 비용 지원(896백만원, 5,00명),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1,351백만원, 15,00명)

5. 감염병 대응

- (국가결핵예방) 다제내성결핵 환자 1:1 전담관리 체계 강화(전담요원 '19년 517명/14억원 →

- '20년 965명/190억원), 노인·노숙인·폭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19년 5.6억원 → '20년 37억원), 국산 피내용 BCG 백신 개발(19년 37억원 → '20년 45억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 지원*, A형간염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예방접종 신규 지원
 - * (대상자) 만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412만명
 - (검역관리)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심사대 구축(19년 2대/4.5억원 → '20년 28대/14억원), 폐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 예방 강화(19년 5.5억원 → '20년 7.5억원)
 - * 자동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밀접접촉자 구분, 지자체 통보로 감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
 -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메르스 등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응형 대비 국가비축물자(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확보(19년 250억원 → '20년 398억원)

6. 공공의료지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책임의료기관 육성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확대(923억→1,026억),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연계를 위한 공공보건으로 협력체계 구축(권역 10~12개, 지역 15개소(신규)
 -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지원(7→12개소)
 - (중증 어린이병원 기능강화)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대상 중증 소아 단기입원 병동 설치(1개소)
 - * 24시간 간호·간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증 어린이 가족에 대한 돌봄·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할 수 있도록 중증 소아환자 요양병동 설치 지원
 - (응급의료 이송체계) 닥터헬기 대형화(중형 → 대형, 경기도 지역) 및 시범사업(24시간 운영, 구조활동병행)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13.3억원)

7. 바이오헬스

- (데이터 플랫폼 마련)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영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
-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복지·과기·산업) : 신규 → (20년 안) 150억(순증)
-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신규 → (20년 안) 93억(순증)
- (계약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한국형 NIBRT) 지원 확대
- (의료기기산업 육성) 범부처(복지, 과기, 산업부 등) 합동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및 의료기기 시장진출·신뢰성 확보 등 육성 지원
- (사회문제 해결 R&D) 감염병, 치매 등 국민

- 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질병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8. 보육돌봄

- (영유아보육료)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에 따른 연장 보육료 반영(0~2세 420억원, 3~5세 219억원), 보육료 인상(19년 동일률 대비 3.0%)
-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 연장보육교사 5만 2천명(19년 대비 +1만 2천명) 및 대체교사 3,436명(+70명) 배치
- (다함께돌봄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 생활 SOC 복합화 시설 지원(20백만원), 센터 운영비 지원(개소당 월 30만원)
-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50개소 이상 확충
 - * 신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의무화(19.9.~)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19.9월부터 시행)
 - * (경과) '18. 9월, 소득재산 90%이하 만 6세 미만 → '19.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1~3월분 소급) → '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9. 노인 돌봄·소득 개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 및 돌봄규모 확대(35→45만명),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서비스 내용 다양화,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운영,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동 확충(7개소), 치매공공후견지원 확대
- *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일부를 공무원으로 확충함에 따라 인건비 일부 감액 편성
- (기초연금) 소득하위 20~40%까지 월 최대 30만원 확대 지급,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 변경(20년 4월 → '20년 1월,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 (노인일자리) 신노년세대맞춤사회서비스형(2~3.7만개)일자리 및 공익활동형(4만~54.3만) 등 일자리 13만개 확대(61→74만개)* 통한 노년기 소득안정망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노인일자리 수 : 61만개(19년 본예산), 3만개 추가(19년 추정예산)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임.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조금은 위선적인 봉사



김춘영
금빛봉사공연단장

인간은 본디 이기적(利己的)인 동물이다. 이기적 욕망이 빛은 전적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정과 갈등의 시기마다 자기 한 몸을 바쳐 빛이 되어준 분들이 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 비폭력 평화주의를 보여준 간디, 병들고 가난한 이들의 수호천사 테레사 수녀, 인종차별에 끝까지 저항한 만델라 대통령,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나 이태석 신부, 등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 이런 분들의 DNA는 이기적이 아니

라 분명 이타적(利他的)이다. 다행히 이런 분들이 있어 인류는 이기적 야만성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의 우리 현실은 냉랭하고 살벌해 보인다.

매일 접하는 중상모략, 폭력, 살인, 등의 뉴스를 보면, 인간의 이타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의 이기적인 경쟁과 쟁탈에 이웃과의 삶이 삭막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각박한 세상에 누군가 주변 사람을 돕고 산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들리면 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이 기분 좋은 느낌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갖는 감정이다.

이웃의 선행이나 봉사에 호호해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보면, 이타심은 특별한 성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도 늘 가지고 있는 심성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가지 있게 생각한다. 특히 인생 전반(前半)에 재물, 승진, 명예 등을 탐하며 살았던 이들이 인생 후반(後半)에 베풀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봉사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또한 평균수명과 함께 퇴임 후의 삶이 길어지다 보니 봉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지원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 등도 바로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봉사에 대한 가치와 관심이 높아진다 보니 봉사하는 마음가지이 중요해졌다.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를 말할 때, 자발성(自發性), 공익성(公益性), 지속성(持續性), 무보수성(無報酬性), 등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단순한 동정심이나 공명심(功名心)으로 하는 봉사가 아닌 진정한 봉사를 내세운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 봉사에 대가를 바라고, 봉사를 은근히 자랑하고, 봉사자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단체의 힘을 이용해 보려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정년퇴임을 하고 몇 년간 시골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한가로운 시골 생활은 좋았지만, 겨울철의 눈 치우기는 꽤 고역이었다. 특히 눈길 사고가 종종 있던 터라 동네 일을 보고 있던 나로서는 이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 그날도 제법 눈이 많이 내렸다. 간신히 동네 길을 쓸고,

초등학교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비탈진 등갯길에 휘둘렸다. 이웃집 박 노인이 비를 들고 내려온다. 이 노인은 거동도 불편한데 늘 이렇게 눈도 치우고 청소도 하신다. 초췌한 노인의 모습에 고마움과 연민이 느껴졌다.

“영감님 몸도 불편하신데 매번 애쓰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눌하게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나가신다.

“애쓰기는 뭘!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하지.”

순간, 이 길을 조잘대며 걸어갈 초등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에 흐뭇함이, 영감님의 말 속에서 그대로 느껴졌다. 남이 나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나도 그만큼 행복하다는 바로 그 마음이다.

봉사 공연을 다닐 때마다 이분을 종종 떠올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조금은 과시욕을 보이며 봉사를 한다. 하지만 이런 봉사를 위선적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이런 봉사를 하더라도 수혜자가 기뻐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나.

조금은 위선적인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의 이타심만은 버리지 말자.



연현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게

건강과 정신건강 모두 잘 돌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중요한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먼저 가족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돌봄을 받는, 돌봄을 하는 어떤 주체이신가요? 둘째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나를 챙겨 주나요? 아니면 늘 다른 사람을 챙겨 주어야 하는 사람인가요?

선자이든 후자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맘때만 나오는 생로망의 “루주 뷔르 귀프르 베르니 아 레브르”라는 립스타키 있습니다.

누군가 “립스타키 색이 너무 예뻐요”, “네 이맘때만 나오는 생로망의 “루주 뷔르 귀프르 베르니 아 레브르”라는 립스타키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는 무엇을 하셨나요?” “아침 먹었나? 모르겠네요.” “생리는 언제 했나요?” “언제 했지? 달력 좀 볼까요?” 이때 “해나...” 우리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 몸에 중요한 것도 이제는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몸 안에 들어가 소화하고 되고 결국 나의 일부로 변신하는 것들, 나를 제대로 먹이는 것이 최고의 비즈니스이며 경쟁력입니다. 먹는 음식이나 식품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 처음 이 일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비만클리닉을 하는 것을 보고 “별걸 다하네” 했는데 비만 클리닉은 정신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요즘 들어 깨닫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보면 정신, 감정, 현재 신체 컨디션 등을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식사는 무엇을 하셨나요?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하루의 일과는 식사를 하는 것과 함께 해요. 식품관은 인생관이죠. 저는 그동안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한 삶에 대해 자신있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병원을 몇 차례 다녀오고 난 후 식사하는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삼시세끼나와 만나는 시간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만나고 보내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항상 “건강”을 기도하지만 “건강”을 위해 무엇을 잘 하지 못합니다.

2020년 새시대, 새해를 맞이하며 2019년을 잘 보내주고 건강하기 위해 노력해 보아요.

현장의 목소리



김찬양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예상하지 못한 말에 망부석이 되어버렸다.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해원장애인지원복지관은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 이루는 동반자이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사명을 만들었고, 우리가 만든 사명을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니,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했다.

“내가 불친절하게 말했나? 아니면 내 태도 중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나? 목소리가 힘이 빠지거나 날카롭게 이야기한 적 있었나?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결국은 용기를 내어 “혹시 제가 불친절한 부분이 있었나요?”라고 참여자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우리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고 참여자분이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몇 분 후 참여자분이 정적을 깨며 “선생님이 나를 보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해주었다.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던 답과는 거리가 먼 대답이었다.

참여자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적응 지원을 하기보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차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주었다.

적응지도를 마친 뒤 회사로 복귀하는 내 마음속에는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를 조금씩 잊어 갈 때쯤 ‘오늘은 사무실에서 나가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라고 참여자분이 의견을 제시해주었고 그 말에 배치기관 옆에 있는 카페에서 평소와 같이 일주일간 근무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응지도를 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근무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니 담당자인 내가 친구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실제로 우리는 근무상황뿐만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 등 근무를 확인하는 담당자와 참여자가 아닌 서로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던중 참여자는 갑자기 “요즘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였다. 요즘 자꾸들은 노래, 재미나게 보면 티비 방송등 즐거운 얘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타인의 친절함이

라는 뜬금없는 주제에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궁금해하던 것들을 조심스레 질문했다.

먼저, 왜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즘 만난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 참여자는 뉴스에서 생활고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이 조금만 더 친절했다면 이렇게 소외당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친절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작은 사건을 통해 나는 친절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아직도 참여자분이 말한 친절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친절’은 원활한 업무를 위한 수단인 아닌 사랑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선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어렵듯이 짐작할 뿐이다.

2019년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 하루, 친절하 한주를 살아가며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 봐야겠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라혜영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hyra21@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충청북도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지인에게 몇 달전 사기를 당하여 일약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지인에 대한 형사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지인이 아무리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저의 금전적 손해가 전보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사기죄의 범인인 가해자에게 불법행

형사배상명령제도

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즉 가해자의 사기범행에 대한 증거를 본인이 직접 확보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형사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내용을 심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정보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그 정보를 이용하면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푸르메재단] 2019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인리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19년 12월 2일(월) ~ 2020년 1월 10일(금)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내용: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 신청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 진행일정: -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1월 31일(금)
- 보조기구 전달: 6월 ~ 7월 중
- 보조기구 사용: 7월 ~ 9월
- 결과보고: 10월 중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
■ 문의: 담당자: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02-6395-7003, do0107@purme.org)
■ 참고: http://purme.org

- 신청방법: 입원, 통원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사항: 한국의료지원재단: 02-6212-9753, 02-6212-9755
■ 참고: http://support.komaf12.org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저소득층으로 환자가 있는 사회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소득수준의 경우 차상위계층 포함)
- 청소년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본 기관 홈페이지 신청접수(홈페이지 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을 통한 제출)
■ 제출서류: https://www.bokji.net 홈페이지 참조
■ 심사 및 선정절차: 추천 및 신청(접수 및 심의(후원 및 사례관리(돌봄))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 / ☎ 02-3789-2555 / 이메일: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bokji.net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상시신청)
■ 신청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항목: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 참고: www.shinhanhope.com

[보건복지부] 2020년 제40회 장애인의날 기념 숨은 유망자 공개추천 공고

- 추천대상: -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인권침해 방지에 기여한 자
-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공헌한 자
- 장애인 의료, 교육, 직업재활, 체육 사업에 기여한 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구 개발 보급에 공헌한 자
-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
■ 추천기준: 개인·단체 공통(운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 추천기한: 2020년 1월 8일(수) 18시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한글파일 및 우편제출)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3)
■ 참고: http://www.mohw.go.kr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2020년 3월 말
■ 정부포상 시상일: 2020년 4월 20일(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전국 사회복지관
■ 지원대상: 화상, 고도비만, 기형 등 의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대상자
■ 지원내용: 의형적 신체질환 및 정신건강 치료, 사회복귀활동 지원(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안내문 참조)
■ 신청기간: 수시 진행(매월 대상자 모집 및 심사 진행 예정)
■ 기타: - 붙임문서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swc.or.kr) 복지정보-사회복지소식에서 다운로드
■ 문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담당(전화: 070-7017-6623)

[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후원처: 신한금융그룹

[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를 포함(산재승인 여부 무관)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4인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이하)
■ 지원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자원 봉사자 모집

- ▶ 장남감도서관 업무보조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43-857-5960
▶ 미술교육 지도
관리센터: 늘푸른아동원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43-236-6696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43-216-1365
▶ 영어, 중국어 통역봉사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43-216-3060

- ▶ 경로식당 봉사단체 모집
관리센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43-216-9811
▶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70-7752-3927
▶ 발달장애인 적응지원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43-295-2505
▶ 업무보조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43-291-0199

-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43-267-4590

- ▶ 문화예술 공연 봉사
관리센터: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19.12.1 ~ 20.1.31
전화번호: 043-218-3436

*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재능나눔 연합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식) 소속 재능나눔 연합봉사단(회장 김영준)은 지난 11월 22일 괴산군 일대에서 소외계층(2가구,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재능나눔 연합봉사단은 2019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영준 회장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소소한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

들어가겠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Infographic for '전자산업 재해근로자 지원사업' (IT Industry Disaster Workers Support Project). It lists support categories like medical care, rehabilitation, and living expenses, along with eligibility criteria and application methods. It features logos for the Korea Medical Assistance Foundation, Samsung, and other partners.

복지만평

뚝배기

이창신 www.bokmani.com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다릅니다.